

# 野, 남북정상회담 안중에 없는 ‘드루킹 공세’

### 한국당 “특검으로 전모 밝혀야” 바른미래 “검·경 고의 부실수사” 與, 국회 복구·정쟁 자제 촉구

여야는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남겨둔 26일에 정치적 공방을 주고 받았다.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만나는 역사적 순간을 정치적 분위기로 이어가고 싶은 여당과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여파를 확산하고 싶은 야당이 충돌한 탓이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조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야당의 조건없는 국회 복귀와 정쟁 자제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드루킹 특검 압박을 강도 높게 이어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도 지방선거용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성공에 초당적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차게 발을 내딛는 순간에도 오직 국회는 한국당발(發)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한반도에 불이 찾아왔는데 한국당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 같은 황당한 말만 계속해 남북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면서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빈곤한 철학과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급함이 딱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에는 “TV조선이 전날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한국당과 TV조선이 사실상 드루킹 공세에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장은 이날 원내대책



우원식 “野, 조건없이 국회 복귀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서 “정당이 기간 방송도 아닌데 언론사에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TV조선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간의 커넥션에 대한 적절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 활동근거지인 느릅나무출판사에서 태블릿PC 등을 들고나온 TV조선 기자의 해고·파면 등을 요구하면서 “TV조선 내 여러 기자가 연루돼 있다는 첩보가 있으니 전반적인 조사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 관련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중앙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특검을 통해 드루킹 게이트 전모가 밝혀지면 허위사실도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의 ‘3각 커넥션’ 주장에 대해서는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췌하기 그지없는 몰타기”라며 “의혹을 제기한 홍익표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강성권 전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가 캠프 여직원 폭행사건을 적극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측근 비행’ 및 ‘미투’를 정점화하는 데 주

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동안 잠잠한가 싶던 민주당의 성추문 사건이 다시 터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안희정부터 문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다”는 강성권까지, 이정권 사람들에게 윤리의식이란 게 있거나 한 지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의 고의 부실 수사에 이어 검찰마저도 이 사건을 종결하려는 정황이 뚜렷해 이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로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분당 상황 비례대표 정당구속 강제는 위헌 소지”

### 평화당 ‘비례대표 선택권 보장’ 토론회...바른미래에 3인 출당 압박 가속

민주평화당이 26일 오전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당 출신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3명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출당 요구 강도를 높였다.

이들은 실질적 활동은 평화당에서 하면서도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발이 묶여 있다. 이 의원은 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을, 장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이들 비례대표 3인과 평화당 싱크탱크인 민주평화정책연구원, 정의당의 정의정책연구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선택권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은 발제문에서 “입법적 정당 이탈이 아닌 합당이

나 분당의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정당 구속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제량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중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당적변경 시 의원직 상실 관련 규정은 ‘비례대표 의원이 합당 및 해산에 반대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정당 합당에 순응하지 않으면 제명처분을 요구하게 되는 난센스적 상황이 벌어지며, 이는 비례대표를 소속 정당의 종물(從物)쯤으로 간주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문인 민주당 복구청장 예비후보 정책선거 시동

### 복구지역 후보 초청 정책간담회

문인 더불어민주당 복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광주시 복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같은 당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와 복구지역 예비후보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기초단체장 예비후보-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가 모여 복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구지역 광주시의원 예비후보인 조석호, 이부일, 김동찬과 복구의회 예비후보인 주용수, 최용환, 주순일, 임종국, 표범식, 이정철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주순일 복구의원 예비후보는 저출산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를, 김동찬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는 광주역 활성화와

용봉IC 공사 조속 시행을 주장했다. 또 주용수 복구의원 예비후보는 청년정책 방안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바쁜 일정에도 격의 없는 소통 행보를 보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제안이 곧 복구 주민들의 뜻인 만큼, 모든 후보가 정책·공약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공약·정책없이 비방이 난무하는 혼탁으로 치닫는다는 비난이 많아 이번 정책 간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복구 지역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와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서로 정책을 공유하면서 복구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6·13 선거 현장

### 구청장·시의원 후보

#### 조오섭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20일 평양과기대 총장이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유대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광주시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문화예술행사를 매개한 광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남북간 수학여행을 이어가려는 등 우리 지역의 남북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북구가 앞장서 학문, 문예, 교육 등 남북교류를 주도하겠다”면서 “남과 북의 완전한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믿음직한 토대가 되겠다. 상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미래를 북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 김삼호 “남북정상회담 광산구민과 함께 응원”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성공을 기원하고 광산구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문을 연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이어졌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이 지나며 경색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수사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항구적인 남북 평화와 공존, 번영의 길로 이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를 뽑는 경선도 광주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지키고 이어가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정현 “과밀학급·고교 원거리 배정 개선과제”



이정현 민주평화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26일 “42만 광산 주민의 평균 연령이 36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지역이며, 그만큼 교육수요와 교육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지만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밀학급 문제와 상급학교 진학시 원거리에 배정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광문사립학교 신설과 유치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청소년복합문화공간과 구·시립도서관 신설 ▲보육환경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 ▲친환경인기 로컬푸드 확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추진 등을 제시했다.

#### 김광란 “복합문화도서관·생태공원 건립”



광산구의회 김광란(47)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원(광산구 제4선거구·신가동, 신창동) 경선에 출마한다. 김 예비후보는 “신가동·신창동 주민들의 바람을 담아 전세계 시민을 주목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찾고 싶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역사·문화 체험교육이 가능한 ‘신창생태공원’ 조성 ▲광산구 문화예술교육플랫폼 ‘영동’ 사업 확대 ▲신가동 재개발사업 조기부터 시민참여를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전남대학교 총여학생회 부회장 출신이며 광산구 더불어러노인복지관 사무국장,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대통령후보 국민주권광주선대위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오광록기자 kroh@

## 나주, 2층 주택,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5200만원
- H. 010-6838-1230

